

간호 대학생의 응급실 관찰 경험

김혜옥*, 서봉화*, 남문희**, 박은아***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The Study about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n Emergency Room Environment Observation

Hae-Ok Kim, Bong-Hwa Seo*, Mun-Hee Nam**, Euna Park***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Dep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술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효과적인 임상교육 전략을 개발하고 임상실습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4학년 간호 대학생 30명에게 응급실 임상실습 동안 응급실의 상황에 대한 관찰경험을 서술하도록 한 후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실행학습을 통하여 성찰학습의 의미로 분석하였다.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참여관찰 경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제는 ‘역동적인 간호사’,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자’라는 긍정적인 주제와 ‘임시방편적인 사고’, ‘환자보호자와 간호사의 갈등’, ‘기계적인 움직임’ 등의 부정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관찰경험은 간호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올바른 간호중재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간호교육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임상실무교육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응급실, 임상실습, 관찰, 경험

Abstract The research about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n the clinical environment observation is essential to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for clinical education and to improve quality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education. This study is aimed to above goal by the report about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n emergency room environmental observa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30 nursing students who are senior in the practicing at emergence room. Data analysis was centered on scrutinizing the contents of the participants' replies in order to deduce any relevant meaning. Also, data were analyzed by the meaning of learning based on self-examination through the practical learn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topics stated.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n emergency room observation will supply the thinking about their own self-portrait in near future, and will give self reflection about correct nursing interventions to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ergency Room, Clinical Practice, Observation, Experience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3 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4 November 2013, Revised 28 Nov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Euna Park(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soundness@pk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응급실은 질병이나 응급사고와 관련된 생명 위협적 상황이나 학대, 강간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응급 환자에게 일차적인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부서이므로 간호사들의 수준 높은 경험과 즉각적인 간호가 요구되는 곳이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응급실 제반 관리 및 대상자들의 질적 간호 요구에 대한 충족 부담감, 복잡하고 급박한 의사결정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커지고 있다[1]. 이렇듯 과중한 업무 부담과 긴장감을 경험하는 응급실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근무불만족으로 이어져 소진이나 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2].

간호교육은 크게 인간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이를 적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교육 중에서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3]이므로 간호 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습과정 동안 때로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고[4], 실습기간 동안 부여되는 과도한 과제나 업무 등은 간호 대학생이 타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5]. 이러한 간호 대학생의 실습관련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먼저 양적 연구로 시뮬레이션 적용 연구[6][7], OSCE 적용 연구[8], 교내 임상수행력 평가[9],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연구[3] 등이 이루어졌다. 간호 대학생의 실습관련 적응 증진을 위한 질적 연구로 장완숙[10]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간호의 일상을 환경적인 맥락과 사회구조 요인, 간호사들의 행동과 언어 표현 등을 통해 특수 부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민소영[11]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극복 수기집을 읽고 정신장애인의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독서를 통한 임상현장 이해의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이옥자, 임숙빈, 박현숙[12]은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고통체험 경험을 서술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체험을 파악하고 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실제 임상현장 경험하지 않고 실시한 연구로, 실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에서의 간호 대학생의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내적 경험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문화기술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문화란 한 집단의 삶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들어 내는 의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응급실 임상실습 현장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관찰일지, 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응급실 실습경험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확인하는 것은 간호 교육에서 효과적인 임상실습 전략을 개발하고 임상실습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 대학생의 실습현장 관찰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실습 경험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이다.

연구 질문은 “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임상 실습과 관련하여 응급상황의 현장 속에서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가?” “특수한 응급실 문화적 환경 속에서 경험과 관련된 임상실습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 실습 부서 중 응급실 실습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문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Spradley가 제시한 문화기술

적 방법[13]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2 연구 참여자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3차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실습하고 있는 간호학과 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4학년 학생은 모두 20대로 3학년 때의 임상 실습 경험을 토대로 타부서 실습 경험과 응급실의 임상 실습 특수 상황을 비교 분석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이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내용, 관찰기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심층면담 전에 이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가 끝난 다음 논문으로 문서화되고 난 후에 없애기로 하였다. 면담 도중 언제라도 참여자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30명이었다.

실습병원은 개원한지 5년 된 신생병원이면서 그 도시에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다. 병원 전체 병상 수는 1005병상이고, 응급병상은 30병상이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40명이며, 평균 임상경력은 3년이고, 평균연령은 28세이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20일부터 6월10일 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응급실 임상 현장 실습 중 간호사의 업무와 실습상황을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실습 후에 느낀 점은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횟수는 1-2회이었다. 자료 분석 과정 중 부족한 부분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료가 완전포화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실습병원 세미나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개방적이고 반 구조화된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관찰기록은 응급실 실습 중 하루를 선정하여 2시간 동안 응급실 상황과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면서 인지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집단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집단면담의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응급실 임상 실습 시 보고 느낀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실 임상 실습 시 타 임상 실습과 차이점의 경험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실 임상 실습을 통해 자신의 변화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은 무엇었니까?” 등이었다.

현장 관찰기록은 응급상황 시 공간, 사람들, 활동과 사건,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다. 공간에 대한 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하는 응급실의 물리적 장소, 처치실의 구조와 구비 장비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사람에 대한 관찰은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역할, 사건, 의사 소통술 및 응급환자 간호 시 대처 전략 등에 초점을 두고 적도록 하였다. 관계에 대한 관찰을 위해 응급환자의 간호요구, 응급 시 보호자의 요구 및 불평사항, 기타 의료진의 역할 및 반응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집단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어조, 표현 방법 및 표정 등을 관찰 하였다. 면담 후에는 집단 면담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을 현장 관찰 기록지와 비교하면서 확인하였고, 질문사항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중 일부 중요한 내용은 대상자가 말하는 도중 본 연구자가 녹음기에 녹음 하였다. 추후 녹음된 내용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메모된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들음으로써 입력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2.4 자료 분석

면담 녹음테이프는 면담 중에 기록한 메모를 대조하면서 빠짐없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필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현장에서의 참여관찰 성찰일지는 이니셜을 붙여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Spradley[13]의 분류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1차 분석은 참여자로부터 현장 관찰 성찰 일지와 집단면담에서 녹음해 온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 단계 분석 작업에서 자료를 읽어가면서 전반적인 윤곽과 부각되는 잠정적인 영역, 주제들을 메모하였다. 두 번째 분석 작업은 단어, 구절, 문장 등의 개별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세 번째 분석에서 응급상황과 사건에 관련된 간호사들의 업무 활동, 분석된 의미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영역들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영역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한 영역으로 간호학생들의 응급실 임상 실습 경험 속에 응급 간호사들의 업무권한과 역할관계, 전문성 영역을 선정하여 분류하고 하위분류의 속성을 상호비교하

면서 분류표를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분류들에 공통적으로 내포된 원리(주제)를 찾아내어 1차 자료 분석을 마무리 하였다.

2차 분석은 경험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관한 것이다. 응급실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사회 문화 구성 요소를 분류 틀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인력구성, 물리적 환경과 장비, 실습학생들의 요소 등으로 조직하였다.

3차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보 분석결과와 관련된 자료 분류결과와의 연계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4차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범주화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본질적이고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질적 주제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4]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응용성에 근거하였다.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및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시작과 동시에 완성될 때 까지 계속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문장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서술과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였다.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2인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응급실 임상 실습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응급실 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응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 있어 4학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 분석 연구방법을 통해 응급실 임상실습 참여관찰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 대학생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에서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긍정적인 주제는 ‘역동적인 간호사’,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자’ 등이었으며, 부정적인 주제는 ‘임시방편적인 사고’, ‘환자보호

자와 간호사의 갈등’, ‘기계적인 움직임’ 등 이었다.

3.1 참여자의 경험진술

3.1.1 역동적인 간호사

‘역동적인 간호사’에서는 ‘응급상황에 따라 다양한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분위기’, ‘새로운 임상실습 경험에 눈뜨는 장’, ‘간호학생은 부러먹는 존재가 아닌 배우는 존재로 인식 전환’ 등 3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응급실은 입원병동과 달리 대상자의 응급상태에 따라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간호사를 부르거나 간호를 요구하면 달려가 간호를 제공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전형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돌발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에서 간호가 제공된다. 또 참여자들은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에 적절한 간호 업무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미래의 응급실 간호사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동시에 응급실 임상실습은 새로운 임상실습경험에 눈뜨게 되는 곳이라고 경험한다. 이로 인하여 미래의 구체적인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응급 상황에서도 간호학생들에게도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시킨다는 것보다 부탁의 느낌이 강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간호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은 ‘부러먹는 존재’가 아니라 ‘배우는 존재’로 인식해서 부탁 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변화에 민감한 나에게 입·퇴원이 빠르고 역동적인 응급실 실습은 제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으로서 나에게 응급실은 ‘매우 만족’이에요. 이 실습을 통하여 병원에 취업한 후 어떤 파트에서 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꿈꿈이 생각해 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응급실 방문 환자는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간호를 요구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간호 학생인 나도 모르게 간호사 선생님의 뒤를 뛰어다닐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의 다이내믹한 면모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또 병동보다 EMR을 더 자주 보고 추가 오더를 자주 체크하면서 어떤 간호가 제공해야 하는지 바빠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 살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3.1.2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에서는 ‘긴박한 상황 시 의사 소통술’, ‘타 의료인의 업무 미수행시의 원망의 해소’, ‘초 비상 상태 속 의사 소통술’의 3가지 주제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잡하고 과다한 간호업무가 처리되는 응급상황에서의 환자나 보호자와 대면 시 의사 소통술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응급실로 온 모든 환자가 빠른 처치를 원하고, 이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주장도 많고 다툼도 많다.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응급실에 내원한 만큼 자신이 가장 중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나, 간호사실내에는 환자 분류영역이 있어 이에 맞추어 환자를 배치하면 환자 간호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았다. 간호사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응급상황이라도 간호 처치에 따른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컴퓨터가 대상자 가까이 위치해 있어 간호업무 후 바로 바로 기록하는 것도 병동실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응급환자 도착과 동시에 응급실은 초비상상태로 전환된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 외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해야 그 다음 단계의 간호를 할 수 있다. 의사가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환자와 보호자의 원망의 담은 간호사에게 모두 다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하게 되었다. 환자분이 응급실 침대에 눕자마자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비강 캐놀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고 EKG 모니터를 연결하는데 5분을 넘기지 않고 의사 오더에 따라 처방약물을 섞어 재빠르게 환자에게 공급한다. 응급실 실습경험을 통하여 응급상황 속 대상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간호사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넘쳐 나는데 환자들은 서로 자신의 상태만 봐주길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급 시 최상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에 맞는 간호 의사소통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소변을 통해 섭취량과 배설량을 1시간마다 종이에 기록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한 후에 소변을 밑에 주머니에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간호사

는 응급환자로 정신이 없는데 다른 환자분은 빨리 체온을 안 재주냐고 불평을 하셨는데 응급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빠른 처치, 검사를 원하셔서 불평도 많고 다툼도 많은 곳인 것 같아요.

환자의 보호자가 ‘담당선생님 언제 오세요? 환자가 힘들어 하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고’ 라고 하니 까 이에 간호사는 ‘선생님에게 연락해 왔어요. 선생님보시고 해야지 저희가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았어요.

투약이 조금만 늦어져도 화를 내고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호자들과 간호사들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관찰하게 돼요”.

3.1.3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에서는 ‘응급처치 후 퇴원 환자를 바라보는 것은 보람된 일’, ‘파도가 몰고 간 뒤 잔잔한 바다의 여유’ 등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응급환자들 중에서 통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통하여 통증이 감소되어 완쾌되어 퇴원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응급실 업무가 참 보람차고 기쁜 일임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또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분들 중에서 병실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많다. 입원 병실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환자분들은 다인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도 신청 순으로 병실로 입원하게 된다. 간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병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입원병실과 달리 응급실은 응급이 너무 많아 정신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응급실은 응급상황이 몰릴 때는 몰리지만, 여유 있을 때는 한없이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이곳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상황에 대하여 다시 재고해 보는 경험도 가지게 된다.

“응급실 환자가 완쾌되어 퇴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응급실 업무 중 참 보람차고 기쁜 일인 것 같았어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몰려서 발생하지만, 여유 있을 때는 한없이 여유로운데 내가 곧 신규 간호사가 될 입장이라서 그런지 응급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간호사일 때 응급실에 배치 받는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구요”.

3.1.4 임시방편적인 사고

‘임시방편적인 사고’에서는 ‘응급상황만 해결하면 된다’는 1개의 주제가 구성되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입·퇴원결정이 하루 이틀에 걸쳐 대부분 결정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응급실 근무 간호사들 중에는 정말 바쁘지 않아도 바쁜 상황에 익숙한 태도로 환자에게 차갑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반복적으로 내원 입원하는 환자와는 익숙하고 편안한 라포가 형성되었으나 처음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와의 의료진(간호사)와의 인간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말 바쁜 상황도 아니었고, 충분히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환자분께 차갑게 대답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분과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고 오래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3.1.5 환자보호자와 간호사의 갈등

‘환자보호자와 간호사의 갈등’에 있어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기술’, ‘생의 마지막 까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2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응급실 체류시간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들에게 호소를 할 수 밖에 없고,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의료인이 간호사이다 보니 간호사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한다. 질병의 진행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니 건강 상태는 호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상태 악화 시 의료진 특히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러나 담당 의가 왔을 때는 계속 입원하여 담당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간호사에게 했던 상황보다 수위가 낮게 반응하는 점을 보면서 간호사 입장에서는 화나고 힘든 면이 있다.

환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호자는 힘들고 지쳐 있으며, 단 한번이라도 일어나 이야기하고 싶고, 더 보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라 여겨진다. 의료인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시행한 모든 치료과정을 중단

하고 환자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또 다른 밀려오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에 바쁘다. 그리하여 응급실은 생의 마지막을 배려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장이다.

“혈당이 굉장히 높은 할아버지 환자분이 처음에는 320mg/dl 였는데 인슐린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420mg/dl까지 올라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설득을 하였으나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슐린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인 보호자도 힘을 쓰지 못하였고 나중에 주치의도 왔으나 환자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또 간호사 선생님만 힘들게 설득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 환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간호사에게만 따졌습니다. 또 의사를 불러오라며 간호사 따위가 뭐 길래 이러냐며 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이 왔습니다. 또한 환자들 이 간호사는 무시하고 의사만 떠받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거기다 처방권이 있는데도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는 의사의 모습과 처방권이 없는데도 환자를 설득해야 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1.6 기계적인 움직임

‘기계적인 움직임’은 응급상황 속에서 간호사는 ‘자동화된 기계처럼 움직임’의 1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응급실은 많은 기계소리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실려오는 사람들,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치는 분들 등 다른 병동보다 소란스럽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우선해야 할 프로토콜을 따라서 자동화된 기계처럼 움직이고 처방된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항상 바쁘다는 타성에 젖어 응급상황에 부합된 즉각적이고, 기계적, 사무적, 기술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간호가 이루어짐으로 하여 간호의 본질인 따뜻함, 배려, 존중 등은 부족해 보인다. 그로 인하여 환자는 개별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박하고 바쁘더라도 환자 및 그들의 가족들을 안심시켜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응급실 간호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환자를 위한 최상의 간호는 응급상황에 부합된 환자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실에 갑자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 간호사들은 일일이 그들 모두의 감정과 상태를 사정하고 따뜻한 손길로 간호를 해 줄 수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임으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침대가 부족하여 응급환자이지만 C(non-urgent) 역에서 대기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요... A, B, D, P 존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실과 긴급 환자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응급상황에 맞게 간호사들은 다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계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3.2 응급실 현장실습 관찰경험에 대한 의미구조 기술

이상의 결과에서 도출된 응급실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간호사들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실 간호사에 대해 전문적이고 능숙한 업무처리 모습을 보고 간호학문의 역동성을 느끼고, 적절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상황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전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응급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차갑고 상투적인 상황에 실망하기도 한다. 환자, 보호자 및 의사의 오더 사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화가 나기도 하였다. 대상자의 마음을 읽어 주는 공감 없이 기계적, 사무적 및 기술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모습에 씁쓸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신규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4학년 학생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학의 선택 동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성찰의 기회가 되어 실제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응급실 임상실습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학생간호사의 시각으로 인지한 응급실의 문화를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 주제 3가지와 부정적 주제 3가지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간은 문화의 결과물인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의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 역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학생 간호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생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고 역동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임상실습에 대한 보람을 찾았으며, 병원 내에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 간호사를 배우는 존재로 인식해주는데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수는 제한적인데 환자들은 서로 먼저 봐주기를 원하고, 어수선하며, 응급상황이 수시로 벌어지는 등의 응급실의 공간적 특수성은 학생 간호사가 향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응급실 부서 배치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같은 공간을 두고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과 근무하는 사람 사이에는 인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측면에서의 인식을 확인한 강현이[15]의 연구에서 응급실이 소란스럽고 불편하고, 의료진들은 바빠서 불안하며, 심각한 옆의 환자 상태를 보니 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등 응급실 환경으로 인한 불안함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측면에서 응급실 환경을 바라본 김대우[16]의 연구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모든 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행해져야 하는 중증응급상황으로 보았다. 이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과거력, 정확한 검사 수치, 활력징후 등의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결과와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여 환자를 종합적으로 추론해 가는 분석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응급실 이용자는 정서적 측면이 지지되는 공간을 원하고, 응급실 근무 간호사는 다년간의 응급실 근무를 통해 습득된 객관적 상황판단 측면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공간의 특성은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구성된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급실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내용 중 ‘역동적인 간호사’는 다양한 대상자 관리와 상황에 맞는 능숙하고 세련된 간호제공을 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간호사가 꿈꾸는

미래의 간호사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은 복잡하고 과다한 업무가 처리되는 응급실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면 갈등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은 몰아치는 환자와 업무를 정리하고 나면 응급상황과는 전혀 다른 여유를 찾을 수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간호사의 중재역할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간호사의 능력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학생 간호사가 임상실습을 통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연구한 Winsor[17]에 따르면,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총체적인 간호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폭을 넓히게 된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내용 중 ‘임시방편적인 사고’는 응급실에 오래 있다 보면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친절할 모습을 보여도 되는데 응급실의 특성상 오래 볼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싶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환자보호자와 간호사의 갈등’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24시간을 함께 하는 간호사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를 보다 더 잘 보살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 상황 자체가 대상자를 일일이 배려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 갈등이 많다. ‘기계적인 움직임’은 대상자 간호에서 간호의 본질인 따뜻함이나 배려, 정서적인 지지가 다소 아쉬워 보였다. 이는 Beck[18]이 임상실습을 한 후 학생간호사의 경험을 연구하여 임상실습 경험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버려진 느낌을 받고, 실제적인 충격에 직면하며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잘 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의료진의 언어적, 비언어적 지지가 환자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경청과 옆에 있어주는 것, 자세한 설명과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등의 사려 깊은 행동이 환자의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다 [19][20].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학생 간호사를 위한 효과적인 실습방법 및 내용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 임상 실습을 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하여 탐구한 문화기술지연구이다. 참여자는 응급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간호사 총 30명이었으며, 이들과의 면담과 참여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분류분석과 텍스트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응급실 실습 경험은 크게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는 역동적인 간호사, 응급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응급실 간호사는 교통정리 담당, 임시방편적인 사고, 환자보호자와 간호사의 갈등,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분류되었다. 각 양상에서 참여자 자신의 응급실 경험에 대한 내용과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문화를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임상실습전략을 가능케 하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을 남녀의 차이에 따른 특수부서에서의 임상경험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면 성별을 고려한 실습운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자들의 응급실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습방법 및 내용을 포함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2013 year)’

REFERENCES

- [1] H. J. Kim, H. Choi, Emergency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3, pp. 320-3286, 2012.
- [2] M. O. Oh, M. H. Sung, Y. W. Kim, Job stress, fatigue,,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organiza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2, pp. 215-227, 2011.
- [3] H. S. Lee, E. J. Kim, The comparisi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5-13, 2008.
- [4] Seyedfatemi, N., Tafreshi, M., & Hagani, H.,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6:11 doi:10.1186/1472-6955-6-11, 2007.
- [5] E. A. Kim,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6] H. S. Shin, K. K. Shim, Y. N. Lee, Nursing activities identified through pediatric nursing simul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11-119, 2013.
- [7] H. W. Kim, E. Y. Suh, Nursing students' immersion experiences in a comprehensive simulation scenario using high-quality human patient simulator among nursing stud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0, No. 1, pp. 89-99, 2012.
- [8] Kohrt, W. M., Bloomfield, S. A., Little, K. D., Nelson, M. E., & Yingling, W. R.,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position stand: Physical activity and bone health,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Exercise*, Vol. 36, No. 11, pp. 1985-1996, 2004.
- [9] J. Woon, K. J. Kim, M. S. Choi,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73-284, 2013.
- [10] W. S. Jang, Ethnography on the daily life of ICU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Vol. 3, No. 1, pp. 77-93, 2002.
- [11] S. Y. Min, Experience of reading book <memorandum of overcoming in person with mental illness> by university stud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483-491, 2009.
- [12] O. J. Lee, S. B. Im, H. S. Park, Unresolved suffering live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0, No. 1, pp. 37-48, 2011.
- [13] Spradley, J.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Toronto, Canada: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 [14] Lincoln, Y. S., & Guba, E. 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 [15] H. Y. Kang, Phenominological study on the elderly patients' experience in the admission into hospital emergency roo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1.
- [16] D. W. Kim, Subjective forms of nurses' being intuitive in emergency department: Q methodology. Korea University, 2012.
- [17] Windsor, A.,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4, pp. 150-154, 1987.
- [18] Beck, C. T.,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a phenomenolog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30, No. 6, pp. 489-497, 1993.
- [19] Koopmeiners, L., Post-white, J., Gutknecht, S., Ceronsky, C., Nickelson, K., Drew, D., et al., How healthcare professional contribute to hope in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Vol. 24, pp. 1507-1513, 1997.
- [20] Saleh, U. S., Brockopp, D. Y., Hope among patients with cancer hospitalized for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 phenomenologic study, *Cancer Nursing*, Vol. 24, pp. 308-314, 2001.

김 혜 옥(Kim, Hae Ok)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인력 관리, 질 관리, 노인 간호
- E-Mail : hol503@hanmail.net

서 봉 화(Seo, Bong Wha)



- 2000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간호, 호스피스, 환자안전
- E-Mail : sbh2161@kyungnam.ac.kr

남 문 희(Nam, Mun Hee)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의료 질 관리, 행복지수
- E-Mail : ny386@kaya.ac.kr

박 은 아(Park, Euna)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질적 연구, 아동, 성역할 정체감
- E-Mail : soundness@pknu.ac.kr